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부모 역할 효능감 영향 요인: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간호 교육 요구도

남현아¹ · 이화진² · 김미옥³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¹,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수간호사²,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³

The Contribution of Competence in Parenting: Uncertainty related Children's Diseases, and Nursing Educational Need

Nam, Hyun A¹ · Lee, Hwa Jin² · Kim, Mi Ok³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yeongTaek University, Pyeongtaek

²Head Nurse, Sungshim University Hospital, Hwasung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Competence in parenting helps the parent to recognize the ability to resolve problems arising to children, allowing positive interactions with children through desirable child-raising behavior and smooth communication with childre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ntribution of uncertainty and educational needs to the competence in parenting. **Methods:** Total 159 mothers responded a questionnaire developed to measure uncertainty, educational needs, and competence in parenting. t-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We found that uncertainty, nursing educational need, and mothers' age had influence to the competence in parenting. **Conclusion:** Nursing interventions provided to the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for better parental competence need to include programs for alleviating uncertainty and satisfying the need for nursing education.

Key Words: Uncertainty, Parenting, Nurs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부모는 자녀의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발달에 도움을 준다(Go, 2008).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유능한 성인으로서의 본보기가 되고 이로 인해 형성된 부모·자녀 간 신뢰로 자녀는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원만한 대처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성장하게 된다(Rha, 2005). 이러한 부모역할에서 갖게 되는 부모역할 효

능감은 실제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어 자녀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하게 하며(Izzo, Shannah, & Rodriguez-Brown, 2000), 이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자녀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부모역할 효능감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Biehle & Kristin, 2011)으로 실제 부모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부모역할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성공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Choe, 2001)는 부모로서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역할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역할 효능감은 자녀의 입

주요어: 불확실성, 부모역할, 간호교육 요구

Corresponding author: Kim, Mi Ok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91 Daehak-ro, Seonghwan-eup, Seobuk-gu, Cheonan 331-707, Korea.
Tel: +82-41-580-2000, Fax: +82-41-582-2117, E-mail: aprilsea@nsu.ac.kr

투고일: 2014년 6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20일

원으로 인해 부모가 지각하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퇴원 후에도 잔재하여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현대 사회의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소규모화 됨에 따라 실질적인 자원 부족으로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데, 특히 아동의 질병 발생과 입원은 가족에게 위기를 초래하는 생활 사건으로서 가족의 기능 및 구성원 역할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일상적인 평형상태가 깨어지게 된다. 즉, 자녀 양육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입원으로 인한 낮은 병원 환경과 검사와 투약 및 처치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안, 공포감, 무력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죄의식을 경험하게 되며(Koo, 2002; Park, 2003), 간호사의 온정적이지 못한 태도와 낮은 의사소통 등은 어머니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한다(Musa, Akande, & Adebayo 2005). 이러한 감정은 불안과 동점심의 양육행동으로 표현되어 아동을 방임하거나 과잉보호하게 됨으로써 질병을 가진 아동의 정서에 도리어 해를 끼치게 된다. 어머니의 이러한 정서는 입원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직접 전달되어 환자의 회복이나 정서 안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Koo, 2002; Park, 2003)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자의 간호에 있어 필수적인 어머니의 긍정적인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Park et al., 2000).

질병의 불확실성이란 환자가 질병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의미를 정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주요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서(Mishel, 1997), 부정확한 설명과 불명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와 질병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방해하게 한다. 많은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추구하며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Dan & Sally, 2004). 그러나 자녀의 입원은 어머니로 인해 질병과 치료 및 검사과정, 예후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환자의 치료 및 간호과정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적절한 대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Shannon & Lee, 2008), 부모의 불확실성은 양육효능감에 중요한 영향 요소이다.

입원한 아동의 간호에 있어 어머니는 아동의 주돌봄 제공자이므로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자녀의 입원에 대한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인식하고 그들의 역할 변화를 파악하여 질병과 치료 및 투약 등 입원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부모역할 효능감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는 입원한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Park et al., 2000; Koo, 2002; Park, 2003; Musa, Akande, & Adebayo 2005) 중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모역할 효능감 및 간호 요구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역할 효능감과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간호교육요구 정도를 확인하여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환자의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간호교육 요구가 부모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해봄으로써 자녀의 입원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 어머니의 요구에 적합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입원 환자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 자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간호교육 요구 정도를 조사하고, 부모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 소재 D대학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 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α) .05, 검정력(1- β) 95%, 중간 효과 크기(f) .15, 예측변수 11개를 가정하여 양측검정 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대상자는 135명이었다. 탈락률 20% 내외를 고려하여 배부된 165부의 설문지 중 불충분하게 작성된 설문을 제외한 159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입원한 자녀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진단명, 입원경력과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와 직업, 가족형태, 경제상태 및 배

우자의 양육참여 정도를 묻는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부모역할 효능감

Gibaud-Wallston, Wandersman (1978)의 PSOC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Jung (2007)이 번안한 도구로 총 9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부모의 인지능력(4문항), 부모신념(3문항), 부모역할 수행(2문항)의 3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Jung (2007)에서 Cronbach's α 값 .85, 본 연구에서 .87이었다.

3)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Mishel (1997)이 개발한 PPUS (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을 Oh (1997)가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총 22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환자의 질병 및 입원과 관련한 부모의 불확실성 지각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모호성(10문항)과 질병의 예측 불가능(8문항), 의료진에 대한 신뢰성(4문항)의 3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긍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Oh (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 .75, 본 연구에서 .79였다.

4) 간호 교육 요구도

대상자의 간호 교육 요구도는 Chang (1996)가 개발한 총 39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질병에 관한 영역(9문항), 진단적 검사에 관한 영역(6문항), 치료에 관한 영역(5문항), 주사 및 투약에 관한 영역(3문항), 식이에 관한 영역(2문항), 휴식-수면에 관한 영역(1문항), 정서-심리적인 면에 관한 영역(4문항), 입원생활 안내에 관한 영역(3문항), 퇴원에 관한 영역(6문항)의 9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알고 싶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알기 원한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ang (1996)에서 Cronbach's α 값 .92, 본 연구에서 .98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교의 연구윤리승인(1041479-

201311-HR-003)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일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조사대상 병원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 후 허락을 득하였고, 해당병동의 수간호사인 연구자가 직접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비밀의 보장성과 연구목적외로만 사용성을 약속한 후 설문지와 서면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설문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 역할 효능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간호 교육 요구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역할 효능감 정도와 그 차이는 t-test,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 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일 대학병원 소아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 결과로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입원 환자의 남녀비율은 유사하였고, 0~3세가 57.2%, 4~6세가 29.6% 순이었다. 입원 환자의 60.4%가 첫 아이로, 첫 입원이 86.2%를 차지하였으며, 입원 기간은 대개 1~3일이 38.4%, 4~6일이 52.8%였다. 환자 어머니의 나이는 30~39세가 73.6%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이(73.6%)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를 가진 경우가 41.5%로 무교인 경우보다 작았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9.6%에 불과

하였다. 대부분이(88.7%) 핵가족으로 한달 평균 수입 300만원 이상이 76.7%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도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6.0%,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38.4%,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5.7%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9)

Variables	Categories	n (%)
Child age (year)	0~3	91 (57.2)
	4~6	47 (29.6)
	7~10	15 (9.4)
	≥11	6 (3.8)
Child gender	Male	87 (54.7)
	Female	72 (45.3)
First baby	Yes	96 (60.4)
	No	63 (39.6)
Past experience for child hospitalization	Yes	22 (13.8)
	No	137 (86.2)
Duration of hospitalization (day)	1~3	61 (38.4)
	4~6	84 (52.8)
	≥7	14 (8.8)
Mother's age	≤29	20 (12.6)
	30~39	117 (73.6)
	≥40	22 (13.8)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42 (26.4)
	≥College	117 (73.6)
Religion	Had	66 (41.5)
	Did not have	93 (58.5)
Job status	Employed	63 (39.6)
	Unemployed	96 (60.4)
Family type	Extended	12 (7.5)
	Nuclear	141 (88.7)
	Single parent	6 (3.8)
Family's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37 (23.3)
	≥300	122 (76.7)
Spouse's help in child-raising	Satisfactory	89 (56.0)
	Moderate	61 (38.4)
	Unsatisfactory	9 (5.7)

2. 대상자의 부모 역할 효능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간호 교육 요구 정도

대상자의 부모 역할 효능감 정도는 점수범위 1~5점에서 평균 4.37점으로 중간 이상이었으며, 하부 영역에서 효능감 정도는 부모신념에서 가장 높았고, 부모인지능력, 부모역할 수행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수범위 1~4점에

서 평균 2.03점으로 중간정도의 점수로, 의료진에 대한 신뢰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불확실성을 보였고, 질병의 예측 불가능, 모호성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교육 요구 정도는 4.37점으로 (점수범위 1~5점) 중간 점수 이상을 나타내었다(Table 2).

Table 2. Competence in Parenting, Uncertainty, and Educational Need of Subjects (N=159)

Variables	Range of score	M±SD	
Competence in parenting	1~5	3.61±0.50	
		Parent's perception ability	3.48±0.54
		Confidence	3.97±0.54
		Role performed	3.33±0.69
Uncertainty	1~4	2.03±0.31	
		Ambiguity	1.89±0.45
		Unpredictability of diseases	2.36±0.39
		Trust on health professionals	2.76±0.40
Educational need	1~5	4.37±0.5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효능감 정도는 환아 어머니 나이와 가족의 월평균 수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 나이 40세 이상인 경우가 3.78±0.54점으로 29세 미만의 3.36±0.56점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66±0.47점으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서의 3.44±0.55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부모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 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일변량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어 차이가 난, 환아 어머니 나이와 가족의 월평균 수입, 연구에 사용되어진 독립변수인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간호 교육 요구를 다중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정규성 검토와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여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 범위는 .90~.99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가 1.00~1.10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beta = -.310$), 간호교육 요구($\beta = .212$), 환아 어머니의 나이($\beta = .20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역할

효능감 영향 요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5.087, p<.001$), 설명력은 22.6%였다(Table 4).

로 부모 자녀 관계는 자녀에게 있어서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핵가족화와 소가족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및 어머니의 사회적 참여의 증가와 단절되고 고립된 주거 형태로의 변화 등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어머니 측면에서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대중매체를 통하여 자녀 양

논 의

가정은 인간이 출생 후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 환경의

Table 3. Differences of Competence in Parent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9)

Variables	Categories	Competence in parenting	
		M±SD	t or F (p)
Child's age (year)	0~3	3.56±0.50	1.530 (.209)
	4~6	3.68±0.48	
	7~10	3.59±0.43	
	≥11	3.94±0.61	
Child's gender	Male	3.62±0.49	0.243 (.808)
	Female	3.60±0.51	
First baby	Yes	3.57±0.49	-1.144 (.255)
	No	3.67±0.51	
Past experience for child hospitalization	Yes	3.44±0.46	1.729 (.086)
	No	3.64±0.51	
Duration of hospitalization	1~3	3.60±0.44	0.027 (.973)
	4~6	3.62±0.54	
	≥7	3.61±0.49	
Mother's age	≤29	3.36±0.56	3.945 (.021) a < c
	30~39	3.62±0.47	
	≥40	3.78±0.54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55±0.65	-0.861 (.390)
	≥College	3.63±0.43	
Religion	Had	3.70±0.49	-1.836 (.068)
	Did not have	3.55±0.50	
Job status	Employed	3.70±0.47	-1.762 (.080)
	Unemployed	3.55±0.51	
Family type	Extended	3.50±0.60	1.885 (.155)
	Nuclear	3.60±0.49	
	Single parent	3.98±0.21	
Family's monthly income (10,000 won)	< 300	3.44±0.55	-2.397 (.018)
	≥300	3.66±0.47	
Spouse's help in child-raising	Satisfactory	3.67±0.47	2.734 (.068)
	Moderate	3.57±0.49	
	Unsatisfactory	3.29±0.71	

Table 4. Affecting Factors on Competence in Parenting (N=159)

Variables	β	t	p	R ²
Uncertainty	-.310	-4.163	< .001	.149
Educational need	.212	2.855	.005	.186
Mother's age	.201	2.835	.005	.226
Constant=3.327, F=15.087, p<.001				

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양육경험의 부재와 형제나 친척으로부터의 지원 감소로 인해 양육스트레스 상황에 접하게 된다. 더욱이 자녀의 입원은 역할 변화의 요구를 받게 되고, 이는 부모의 불안을 악화시키며(Kristensson, 2000)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아동에게 직접 전달되어 아동의 회복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아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모 역할 효능감, 간호 교육 요구 정도를 확인하고 부모 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 역할 효능감은 3.61점으로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요로감염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Lee (2011)의 2.82점에 비해 높은 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아와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Song과 Kim (2008)의 3.37점, 3.56점에 비해서도 높은 정도의 부모 역할 효능감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질병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것으로 직접적인 비교해석이 어려우며, 향후 부모 역할 효능감 정도가 아동 질병 경과와 특성, 의료 기관의 형태 및 치료적 접근 방식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면밀히 고려한 상태에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 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나타나, 자녀의 질병, 치료 및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환자 어머니의 정서적, 상황적 변화들은 부모 역할 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는 2.22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가 나타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 (2003)의 2.24점과 Oh (1997)의 2.37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입원 아동의 가족은 아동의 질병 상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준의 불확실성을 경험한다고 한 Koo (2002)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의 하부영역 중 의료진에 대한 신뢰성 정도가 가장 높은 정도를 나타내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친숙하지 않은 의학 용어의 사용 등으로 인한 불완전한 설명 및 온정적이지 못한 태도로 비롯되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환자 어머니의 자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입원 환자 어머니의 불확실성 정도를 조기에 선별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부모 역할 효능감을 안정적으로 유지 혹은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부모 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간호 교육 요구도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역할 효능감 정도는 질병의 치료와 간호에 대한 교육 요구와 관련되며, 자녀 발달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Biehle와 Kristin (2011)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입원 아동의 어머니들의 간호교육 요구도는 4.37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Kim (2005)의 4.40점과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 교육 요구의 하부영역 중 자녀의 질병에 대한 간호교육 요구와 치료에 대한 간호교육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Yoo (2007)에서는 상담, 교육, 직접간호에 대한 간호교육 요구가, Kim (2005)에서는 퇴원 후 간호영역과 입원생활 안내에 대한 간호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입원 기간 동안의 질병 치료 및 간호에 대한 간호 교육 요구도를 충족하기 위한 질병의 경과 및 특성, 치료 및 간호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되며, 이는 입원 기간 동안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기보다 퇴원 후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적용하는 동안에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환자와 부모가 질병 치료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부모 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환자 어머니의 나이로 부모 역할 효능감과 어머니의 나이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Kim과 Lee (2010), Park과 Kim (2009)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40대의 부모 역할 효능감 정도가 20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환자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 역할 효능감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역할 효능감은 부모의 인지능력과 수행, 신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 개인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성장 과정과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이라는 일련의 삶의 전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 나이가 부모 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자녀의 입원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 어머니의 부모 역할 효능감 증진을 돕기 위한 간호 제공 시 어머니 연령별로 세심한 고려와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Miles (1979)는 자녀의 입원으로 질병에 대한 막연함과 불분명, 애매모호함과 예측불가능, 정보의 결핍에 빠져있는 어머니의 간호교육 요구가 낮은 경우, 어머니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자녀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어머니의 자녀 질병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간호 교육 요구도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불안을 초래하고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 정도가 높은 환아 어머니를 초기에 선별하고 이들의 불확실성 요인을 탐색하고 교정함으로써 질병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또한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간호 교육 요구도가 높아지므로(Yoo, 2007; Kim et al., 2007), 간호 교육 요구의 면밀한 사정을 기반으로 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아 병동에 입원한 환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모역할 효능감, 간호 교육 요구를 확인하고 부모 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양육에 있어 위기 상황에 직면한 어머니의 요구에 적합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부모 역할 효능감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환아 어머니의 부모 역할 효능감은 비교적 양호하였고, 자녀의 질병에 대해 불확실성을 지각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의료진에 대한 신뢰성이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하부범주로 나타났다. 환아 어머니의 부모 역할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확실성과 간호교육 요구도, 환아 어머니의 나이순으로, 부모 역할 효능감 증진 전략으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간호 교육 요구도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환아의 어머니는 간호 교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통해 자녀의 질병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게 됨으로써 부모 역할 효능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부모 역할 효능감 정도는 자녀의 질병 및 입원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어떠한 경로로 변화하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더불어 소아 병동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요인의 탐색과 완화를 돕고 간호 교육 요구를 체계적 사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부모 역할 효능감 유지·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Biehle, S. N., & Kristin, D. M. (2011). Personal and co-parent predictors of parenting efficacy across the transition to pa-

renthood.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0*(9), 985-1010.

Choe, H. S. (2001).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Dan, W., & Sally, M. (2004). From uncertainty to support: Communicating with new parents through newsletters. Department of 4-H Youth. *Development and Family & Consumer Sciences, 9*(3), Retrieved February 11, 2011 from: <http://ncsu.edu/ffci/publications/2004/v9-n3-2004-december/ar-2-uncertainty.php>

Giban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In: Barfield V., Burlingame M., edito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 146-162). Toronto, CA: Sage.

Go, J. G. (2008). *Theory and practice of parent education*. Seoul: Yangsewon.

Izzo, C. W., Shanahan, T., & Rodriguez-Brown, F. (2000). Parenta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Mexic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 182.

Jung, E. M. (2007). *The Effects of group program using reality therapy on self-esteem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of low-income single-mother househol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eksuk University, Cheonan.

Kang, K. J., & Jeong, E. M. (2008). The Development the group program for improvement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of single-mother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5*(1), 117-133.

Kim, H. J., Kim, M. H., Kim, Y. K., Yu, M. B., & Oh, J. A. (2007). A study on mother's perception of uncertainty and nursing need concerning child's hospitalization.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0*(2), 136-146.

Kim, M. J. (2005). *A study on nursing educational needs and nurses' educational performance recognised by parents with hospitalized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dong University, Gangneung.

Kim, Y. S., & Lee, G. H. (2010). A solution-focused group program for enhancing parent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1), 187-184.

Koo, H. Y. (2002). Uncertainty and anxiety in families of hospitaliz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8*(1), 67-76.

Kristensson, H. I. (2000). Parental participation in pediatric surgical care. *The Official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 71*(5), 1021-1024.

Lee, H. R. (2011). *The effects of parenting self-efficacy of patient's*

- mothers of urinary tract infection, having the knowledge of the urinary tract infection and the practice of the precautions of the disea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Miles, M. S. (1979). Impact of the intensive care unit on parents. *Issue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3(7), 2-90.
- Mishel, M. H. (1997). Uncertainty in acute illness. *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 15, 57-80.
- Musa O. I., Akande, T. M., & Adebayo, V. T. (2005). Stressful events experienced by mothers with children on admission at the emergency pediatric unit of a tertiary hospital in northern nigeria.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10(3), 66-75.
- Oh, J. (1997). *Study on perception of uncertainty and coping effort of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H. S., Kim Y. Y. (2009). The effects of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parent-child relational satisfac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3), 297-304.
- Park, I. S. (2003).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isease-related uncertainties in the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and their cop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Park, K., Kam, S., Hah, J. O., Park, K. S., Kang, Y. S., & Kim, S. W. (2000). Uncertainty, stress and anxiety of mothers about disease of child.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al Child Health*, 4(2), 219-231.
- Rha, J. H. (2005). A suggestion for new parental roles according to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s: The changing parental roles and practices. *Living Science Association*, 4(3), 411-421.
- Shannon, M., & Lee, K. (2008). HIV-infected mothers' perceptions of uncertainty,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during HIV viral testing of their infants.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1(4), 259-267.
- Song, Y. S., & Kim, Y. J. (2008).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knowledge on parenting self-efficac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fant and childhood mot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81-203.
- Yoo, K. H. (2007). A correlation study on uncertainty, mastery and appraisal of uncertainty in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7(4), 594-602.
- Yoo, K. H. (2007). A study on uncertainty, anxiety and nursing needs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4(2), 213-220.